

광주 과격 이미지 이젠 걷어내자

찾은 폭력시위 취업 막고 기업유치 찬물
“민주성지 먹칠 불법 시위 더 이상 안돼”

어두웠던 시절 한국 사회의 등불이었던 '민주성지' 광주가 이제는 '폭력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의 취업을 막고, 기업 유치에도 찬물을 끼얹는 반(反) 시민적인 불법 폭력시위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살기좋은 도시' 광주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도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22일 오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 대회' 참가자들의 광주

시청 습격사건은 시민들의 이런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시위대는 10여명 단위로 움직이며 보도블록을 때어내 마구잡이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광주시의 상징인 시기(市旗)를 불태우고 시청 기둥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리려 하는 시위대는 차라리 '도시 게릴라'를 연상케 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자동차·타이어 등을 전시한 산업전시관에 까지 돌을 던졌다. 시위대들이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을 2시간여 동안 점거하며 행진을 벌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한 것도,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불만을 무시한 폭력이었다.

윤장현 광주·전남 비전21이사는 "어려웠던 시절 광주가 앞장서 나가다 보니 강경한 이미지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시위를 벌이면 '폭력 도시'로 비난 받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에는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라 생존권이 좌우되는 농민 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면 정부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불법 시위가

많은 도시라는 덩어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폭력 시위 다음날인 23일 광주시청을 찾은 김선식(56·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파괴하는 일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절대 안 된다"며 "이런 꼴을 보여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광주로 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민철(27·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몇차례 기업체 면접 시험까지 갔는데, 데모 많이했느냐고 물어보는 면접관이 더러 있었다"며 "또 이렇게 불법·폭력시위를 하면 취직하기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기물파손 시위자에 市, 손배 청구키로

지난 22일 광주를 비롯, 전국 13개 도시를 폭력시위로 몰아간 반(反) FTA 시위가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시위 가담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된다. 또 광주시청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한 불법·폭력 시위가담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하늘·바람·땅 에너지전
너지의 원리를 보여주는 장치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태양열·풍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2006 하늘 바람 땅 에너지전'이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초등학교생들이 수력에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건교 장관 이용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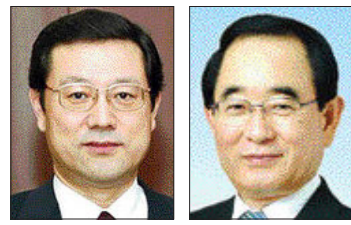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새 건설교통부 장관에 이용섭(55) 행정자치부 장관을, 후임 행자부 장관에 박명재(59)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프로필 4면)

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대통령 정책특보직을 신설,

행자장관 박명재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지철(57)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촉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공석 중인 국정원 1차장을 비롯, 2, 3차장도 함께 교체하기로 하고, 청와대 홍보수석, 경제보좌관 등과 함께 이르면 내주초께 후속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이용섭 건교 박명재 행자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차관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

서울 땅값 상승률 광주의 6배

올 들어 7.35%↑ 집값 이어 양극화 심화

수도권의 '집값 광풍'으로 광주·전남지역 등 지방 거주자들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땅값·집값 모두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2류 국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광주·전남의 땅값과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헤매는 사이 서울의 집값과 땅값은 각각 13%, 8% 뛰었다. 지역민들의 입장에선 상대적 재산가치 저하에 따른 박탈감이 극에 달함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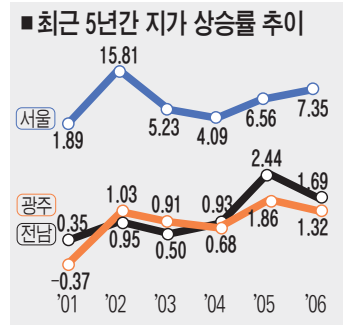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지역 땅값은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7.35% 상승했다. 서울 땅값이 연간 7% 이상 오른 것은 지난 2002년(15.81%) 이후 처음이다. 서울은 특히 10월에만 땅값이 0.83% 올라 9개월째 월평균 0.5% 이상의 급등세

를 보였다.

경기도 과천은 그린벨트 토지의 수요증가 등으로 10월에만 1.81% 폭등했다. 과천 외에도 의왕(1.26%), 성남 수정(1.11%), 성남 중원(1.08%) 등이 1달새 1%가 넘게 오르는 등 수도권 땅값도 '날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은 땅값 상승에서도 수도권과 대조를 보였다. 광주는 올해 땅값 상승률이 1.32%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4.55%)은 물론 전북(1.08%)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남도 1.69% 상승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각각 2.6%, 2.2%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땅값은 되레 하락한 셈이다. 다른 지방의 경우도 충남·북이 각각 5.07%, 4.04% 올랐을뿐 대구 3.48%, 강원 2.19%, 경북 2.17%, 울산 2.08%, 부산 1.97% 등으로 안정세



를 유지했다.

아파트값도 올해 서울과 수도권 이 각각 12.7%, 12.5% 오르며 '집값 광풍'을 실감케 했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 103만416가구 가운데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27.5%(28만3천368가구)에 달해 지역민들의 박탈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는 올해 부산과 대전이 각각 -0.9%, -2.1%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 광주 3.3%, 전남 2.7%, 충북 3.2%, 대구 1.3%, 강원 1.2% 등 소폭 상승에 그쳤다.

/최정희기자 choice@kwangju.co.kr

지준을 높여 부동산 돈줄 쫓는다

韓銀, 5% → 7%로... 16년만에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인상, 시중 유동성 흡수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금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에 대해 현행 5.0%에서 7.0%로 인상을 했다. 또 장기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0.0%로 인하해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이 조치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5면)

지준율이 0.0%로 떨어지는 장기저축성예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

자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 2.0%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 3.0%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한다. 한은이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9일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 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했다. 타점권 차감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을 일정한도까지 지준대상 예금에서 차감, 지준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연필뉴스

▲지급준비율 = 한국은행이 동원 가능한 통화신용정책 가운데 간접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사가 예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한도에 예치하는 현금준비 비율을 뜻한다.



“남악의 꽃”

2011년 화성 분양가 임대(파트+근화 베아채)

살아보고 분양 받는 남악 유일의 프리미엄 남악신도시 근화 베아채

- 2011년 12월 분양
- 2012년 1월 입주
- 2012년 1월 입주
- 2012년 1월 입주

2577㎡(약 34평) 5294㎡
2727㎡(약 39평) 2524㎡

분양문의: 061-287-7878